



## 음악이 글이 되고, 글이 음악이 되는 책

음악은 소리에 대한 복종이다. 들으면 들을 수록 가벼운 음악은 무거운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 평정하고 들뜨게, 은근하고 부드럽게, 낮고 높게, 유희적이되 안정되게 혹은 단호하고도 분별 있게. 물방울처럼 가라앉고 뜨게. 음악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며 표현이다. 음악은 말하는 언어, 그 사이 침묵이 있다. 눈의 시력이 귀의 청력보다 먼저 퇴화되는 것이라면, 남는 것은 듣는 음악일 터이다.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느끼는 음악은 인간에게 영원한 그 무엇이 된다. 사라지는 인간의 삶 앞뒤에 음악이 풍경처럼 있다. 그것이야말로 파란만장한 음악의 세계이고, 삶의 역사마저 넘어서는 무궁무진한 음악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음악은 단순한 언어이지만 복잡하다. 쉽지만 난해하기도 하다. 듣지만 느낌이 애매할 수도 있다. 음악은 그러므로 언어 자체이기도 하고, 매개하는 언어, 즉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가는 초언어일 수도 있다. 나는 그 때마다 음악에 관한 책들을 찾고, 좋은 글들을 읽는다. 음악이 글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 음악이 글이 되어 음악이 더욱 빛나고 울림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글을 읽었을 때 얻는 수확이다. 좋은 글은 다시 음악으로 돌아간다. 글이 음악 안으로 들어가 음악을 더욱 밀도 있게 하고, 넓이를 늘린다. 음악이 글이 되고, 글이 음악이 되는

책이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시와 소설만을 주로 쓰는 작가 김정환의 산물인데, 사실 그가 쓰면 모든 것은 책이 된다. 삶을 책으로 짓는다. 역사, 음악, 사람, 잠언, 논문, 비평 등. 김정환은 참으로 삶에 목마른, 삶에 게걸들린 작가임에 틀림없다. 그 목마름 한 칸에 음악이 있다. 들리는 언어를 보이는 문자로 옮겨 놓은 일, 그것은 시인 김정환이 쓴 『음악이 있는 풍경 1, 2』에 고스란히 담겨있다(이 책 말고도 2001년 청년사에서 출간된 『내 영혼의 음악』이 있다). 김정환의 클래식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음악을 활자 언어화한, 언어화하되 산문과 운문으로 겹겹이 써서 “음악의 순결한 육체”에 바치는 책이다. 그가 쓴 음악에 관한 글을 읽다보면 음악이 먼저 있고, 글 다음에 다시 음악이 덮친다. 그러하여 음악이 글이 되고, 글이 음악이 된다. 나중에는 글과 음악이 하나로 포개져 동등 날아다닌다. 모든 예술의 창조적 상상력은 그래서 서로 합일한다. 더 느낀게. 가랑 이런 문구들, “눈을 감고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면 슬픈 귀가 열린다. 음악에 가까이 가다 운 귀이다. 우리 기억에 가장 친란한 광경의 순간이 그 귓속으로 명징하게 흘러든다. 그 시간, 슬픔도 포함된 그 광경의 역화인 시간, 음악이 흐른다”. 이것은 음악이야말로 추억에 눈물이 묻어나는 광경인 까닭이다.

또 “위대한 슬픔 없이 어찌 위대한 음악이 있으며, 민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음악이 어떻게 민족통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음악이야말로 통일 그 자체이다. 음악 속에서, 노래 속에서 가사와 선율은 각기 따로 이면서도 구분되지 않는다. 작곡가와 연주자, 그리고 가수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작가는 스테타나의 <몰다우 강>을 들으면서 “강물이 음악인지, 음악이 강물인지 모르는 그 사이로 음악과 죽음이 육체를 겹치는 그 통로가 보이고 …… 침묵의 별판이 그의 조국으로 되었을 때, 음악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그 때 죽음도 제 육체를 강물결에 햇살처럼 반짝여댔을 거구요”라고 쓰고 있다. 그런 글도 있다. “아름다운 당신, 그대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은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고 …… 하지만 슬프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 슬픔과 힘, 슬픔이 힘으로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아름다움이었음을 내가 느낀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음악이 흐르며, 그대와 나 사이를 슬픔의 힘으로, 육감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막스 브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2악장이다.” 자, 이렇다면 어찌 음악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안치윤 |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연구평론가

# 소식

##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 인천

김주희  
인천일보 기자

#### 파리에서 <배연신곡> 선보여

인간 문화재 김금화(75) 씨가 2005년 12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국립 해양박물관에서 서해안 풍어제 <배연신곡>을 선보였다. 서해안 풍어제는 해주, 웅진, 연평도 등 서해안 지역의 어촌에 전승돼 온 제의로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대동굿과 선주들이 올리는 배연신곡으로 나뉜다. 만신 김금화의 서해안 풍어제 배연신 곡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82-2호다. 파리에 소개되는 배연신곡은 굿청을 깨끗이 하는 신청울림, 배안의 부정한 것들을 없애는 부정풀이, 그물 올림 등 9개의 굿거리로 진행됐다.

#### 인천시립극단 마지막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숲>

인천시립극단이 2005년 마지막 정기공연(12월 9~18일 인천중합문예회관 소공연장)으로 유쾌하고 따뜻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레티스의 이상한 숲>을 무대에 올렸다.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퍼의 작품으로, 원제는 '레티스 & 러비즈'(Lettice and Lovage). 피터 셰퍼는 인간관계에 대한 연극적 해석 시도로 유명한데, <레티스의 이상한 숲>은 특히 여성의 대립과 이해, 그리고 용서와 화합을 다룬 작품이다. 원작의 제목으로 쓰인 '러비즈(Lovage)'는 '사랑(love)과 아픔(ache)'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레티스에게 하고 통지를 한 문화재관리처 인사의 '롯데', 해고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새로운 일 자리를 소개한다. 레티스의

지하 아파트에서 만난 두 여인은 레티스가 만든 칵테일 '러비즈(Lovage)'를 마시며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사이로 발전한다. 두 여인은 한 여성의 죽음을 연극으로 재현하기 위해 의기투합하기에 이른다. 그러다 레티스는 실수로 롯데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게 되고.

#### 제16회 시민문예대전 입상자 명단 발표

인천문인협회(회장 김윤식)는 제16회 시민문예대전 입상자 명단이 발표했다. 시민문예대전은 등단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인천문인협회가 주관한다. 시상 분야는 시(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4개 부문으로 올해는 총 1천 500여 편이 응모했다. 대상에는 시부문 이미연(부평구 청천1동)의 「저울」을 비롯해, 소설부문 최희정(시흥시 신천동)의 「낡은 기억의 점묘화」, 수필부문 진상용(부평구 삼산동)의 「지계를 생각한다」, 아동문학부문 이은정(강남구 청담동)의 「밤길을 터벅터벅」 등이다.

#### 올 '인천예총 예술상' 수상자 발표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인천시지회(이하 인천예총)는 예술상 선정위 심의를 거쳐 올 '인천예총 예술상' 수상자로, 이순희(국악), 이영학(미술), 김대성(사진), 이종관(음악) 씨 등 4명을 선정했다.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인 최영섭 씨는 특별 공로상을 받았다. 인천예총 예술상은 인천예총에서 제정하여 인천의 예술인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국악분야 수상자인 이순희(49) 씨는 1976년 국악협회 회원으로 입회, 현재까지 수백회에 이르는 국·내외 공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05년 12월 16일 인천국악협회 신임 지회장에 선출됐다. 미술분야 이영학(48) 씨는 1985년 원전(院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회가 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인천의 미술부문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 2004년 인천미술협회 이사에 선임, 활동 중이다. 사진분야 김대성(54) 씨는 1988년 사진작가협회에 입회, 지난 27년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인천의 사진예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점이 인정됐다. 2004년에 인천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음악분야 이종관(49) 씨는 2002년 국내 최초로 구립 관악단인 '연수구립관악단'을 창단, 30여 회의 국내외 공연을 개최했다. 현재 연수구립 관악단 상임지휘자, 위스트 윈드 앙상블 지휘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인천의 음악발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

#### 인천시시각가회 창립전 개최

인천시시각가회(회장 박종갑)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진켄리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인천시시각가회는 (사)한국서각협회 중역 유은상 씨가 자문위원을 맡고, 부이사장에 석계 정기호 씨, 교육·학술분과 위원장자 회장 박종갑 씨 등이 주축이 돼 2005년 6월 19일 창립했다. 이번 창립전에서는 박종갑, 정기호, 김수환 씨 등이 시(詩), 서(書), 화(畵)가 함께 공존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평면 예술을 입체적 조형미로 승화시켜 현대인의 미감을 충족시켜주는 종합입체예술을 만날 수 있다.

####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인천시립무용단이 2005년 12월 9, 10일 이틀간 인천중합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정

기공연으로 창작무용 〈미륵의 꽃〉을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은 아만적인 폭력 앞에 굴하지 않고 '희망의 꽃'을 피우려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노력을 담았다. 그동안 한명옥 예술감독이 보여준 〈미추홀 - 생명의 땅〉, 〈월인천강지곡〉, 〈새 굿〉 등 하늘·땅·바다 연작 시리즈에 이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한 감독은 이 작품에서 타인에 대한 몰이해와 끝없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아만적 폭력 앞에 '꽃 피우기'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를 찾고 있다. 미륵(메시아)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은 그는 "침범해온 이물(異物)을 온몸으로 받아내어 고귀한 보석을 키워내는 진주조개처럼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 한 송이 꽃을 피워낼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깎아 피워낸 그 꽃을 건네 세계를 바꿀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미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감독이 총 감독을, 이재환 씨가 작·연출을 맡았다. 김은희무용단 김은희 대표와 창무회 최지연 부예술감독이 안무했다. 인천 출신의 작곡가 김철환 씨와의 첫 번째 협동작품이라 기대를 모았다.

**인천문화재단 2005년도 미술품 구입 발표**  
(재)인천문화재단은 "11월 2일 '2005년도 미술품 구입 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두 13명 14작품을 구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한 미술품 구입 심사에는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예총 미술협회, 민예총 미술위원회와 인천문화재단 5개 기관이 참여해 협의를 진행했다. 인천문화재단은 "작품의 구입을 위한 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의 3개 위원회 체제를 구성, 작품성과 시대적 의미에 비중을 두어 신중한 검토 끝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이종구 작, 〈백두대간 - 아, 지리산, 지리산!〉은 길이가 2미터 60센티에 이르는 대작으로 국내 여러 미술관으로부터 매입 의사를 타진 받아 온 명작으로, 이번 심사를 통한 동 작품의 구입결정으로 인해 향후 인천문화재단의 자산증식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내 조각계에서는 유일하게 최초로 2006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조각가 정현의 97년 작 청동작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인천

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여온 신진 및 중견 작가들인 김진안, 김진희(A), 김진희(B), 도지성, 박동진, 박승천, 양창석, 이재근, 정채희, 최은규 등의 작품 구입이 결정됐다.

**코믹 풍자극 〈전태일 프로젝트〉**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가 전태일과 비정규직을 소재로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 양극화를 신랄히 꼬집은 코믹 풍자극 〈전태일 프로젝트〉(15~16일)를 부평여성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에 올렸다. 창립 기념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은 바보처럼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허황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창작 뮤지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아픔과 설움을 섬세하게 얘기했다. 〈전태일 프로젝트〉는 이처럼 2005년 노동자의 대명사가 돼버린 비정규직이라는 화두를 전태일 열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노동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메시지로 던졌다. 비정규직 직원들로만 구성된 신화적인 기업 '바보기업'의 사장 나무성. 그는 노동자들이 아무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바보가 되길 바란다. 나 사장은 이런 음모는 '전태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경기**

유재명  
경인일보 기자

**록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호평**

경기·인천지역 14개 문화예술회관들이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13개월 여 만에 만든 창작 록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이 드디어 경기도민들에게 선보였다. 경기지역 문화예술회관협의회(회장 소홍삼, 이하 경문협)가 제작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공연문화의 서울 집중화, 공연시장의 수입 작품 장악, 경기·인천지역 문예회관의 열악한 제작환경 등으로 외면 받아온 지방 문예회관을 다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2005년 11월 25일 파천시민회관을 시작으로 2006년 2월까지 의정부·부천·안산·안양·고양·군포·오산 등 경기지역 순회 공연을 마친 뒤 3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서울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특히 공동창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쿠우스〉, 〈뫼약벌〉, 뮤지컬 〈바람의 나라〉 등으로 1999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과 2004년 올해의 예술상 등을 수상한 대학로의 스타 연출가 김광보 씨가 감독을 맡았다. 김 감독은 다른 스케줄은 접고 이 작품에만 매달려 왔다. 또 클라리넷과 록 밴드, 배우들의 노래 등 모두 24곡이 선보인 음악에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작곡가 김태근 씨가, 안무에는 무용작품으로 드물게 관객들을 울린 〈달지않은 공기〉의 안무가이자 2004년 일본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 솔로 앤 듀오 컴퍼티션에서 대상을 받은 연극무대출신 정영두 씨가 맡았다.

**2005 경기지역 문화정책 대토론회**



(사)한국민족예술인회총연합회 경기지회(지회장 김영기)가 2005년 12월 12, 15, 16일 세 차례에 걸쳐 수원에 소재한 경기문화재단 강의실에서 '2005 경기지역문화정책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대토론회는 12일 '지역문화예술정책 지향의 변화', 15일 '새로운 예술운동, 예술인 네트워크', 16일 '문화예술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각 주제별 발제자와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한 문화기관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벌인 열띤 토론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문화마인드를 현재보다 더욱 양질의 높은 수준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즉, 지방정부가 현재와 같이 축제 등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대신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부양책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비전 제시, 문예진흥 권한을 대폭 위임한 재단 또는 위원회 설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선수는 없고, 구경꾼만 생겨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정부 시절부터 현재 참여정부까지 이뤄지고 있는 향수자 중심의 문화예술 서비스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들이 제기됐고, 창작자와 향수자 간 균형 있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들이 나왔다.

**아트마켓 성남아트센터서 열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성남문화재단이 공연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사고 파는 장터인 '아트마켓 2006 문화예술교육박람회'를 2005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성남아트센터에서 열었다. 전국의 문화회관과 문화의집 등 예술 단체에서 작품을 보고 구매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연극 37개를 비롯해 미술 25개, 미디어 15개, 음악 7개, 문화일반 6개, 무용 5개 등 모두 81개 단체 95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발달 장애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체험프로그램도 선보여 집중 조명을 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다량한 성공사례를 통해 보여 주는 '지역의 꿈'이 첫 선을 보였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초·중·고교 영화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들을 상영하는 '1018영화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성탄, 송년 맞아 공연 풍성**

을유년은 공교롭게도 성탄절과 제야가 토요일이었다. 주말공연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성탄·제야특수를 겨냥한 공연까지 더해져 모처럼 '공연 바다'를 이뤘다. 경기지역에서도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40여 편이 성탄절과 제야 때 열려 도민들에게 골라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스토프〉와 더불어 세계적인 탭댄스 열풍을 몰고 온 호주의 공연문화상품인 〈탭독스(TAP DOGS)〉가 2005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했

다. 우리나라 최초의 언버벌(Non-Verbal) 퍼포먼스인 〈넌타〉도 24~25일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30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각각 공연됐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세미 클래식 송년콘서트가 24일 의정부예술의전당,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영화와 뮤지컬 주제가, 유명 아리아들을 주요 레퍼토리로 펼쳐졌다. 또 이 시대의 진정한 소리꾼인 장사익과 함께하는 제야음악회가 31일 오후 9시부터 새해 자정 30분까지 고양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부천필 제야음악회가 31일 오후 10시 부천시민회관에서 각각 열렸다. 이와 함께 〈50명의 산타가 연주하는 어린이를 위한 성탄축하 오버콘서트〉가 24일 성남아트센터에서, 동화의 고전인 〈걸리버여행기〉(30~31일)와 〈신데렐라〉(31일) 뮤지컬이 각각 고양 어울림누리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등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도 펼쳐졌다. 이 밖에 30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조용필 송년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도 다채롭게 열렸다.

**경기도립국악단 특별기획공연 〈바람의 소리〉**

경기도립국악단 특별기획공연인 〈바람의 소리〉가 2005년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렸다. 국악 작곡가 겸 대금연주가인 김영동 예술감독이 자신의 명상음악 앨범인 '바람의 소리'의 직접 연주자로 나서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관객들에게 연주곡과 악기에 대한 해설도 곁들여 호평을 받았다. 연주곡은 임금 행차시 쓰였던 한국 아악의 백미인 〈수제전〉을 생황과 신디사이저 등 전통악기와 현대악기를 가미해 새롭게 편곡한 〈신수제전〉, 오음계인 아메리칸 인디언 피리에 철현금, 범종 등을 가미, 공허하고 장중함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의 피리소리〉, 맑은 음색의 〈옥저〉, 인도 라가풍의 성악 솔로와 합창이 돋보이는 〈개달음〉 등이 선보였다. 또 소금의 투명하고 청아한 음색과 가야금의 맑고 섬세한 음색이 어우러져 신비감을 자아내는 〈귀소〉, 법정 스님이 암자로 산행하는 모습을 보고 작곡했다는 〈산행〉, 점토로 구워낸 〈훈〉과 일렉트릭 기타의 절묘한 조화가

이뤄진 〈바람의 소리〉에 이어 '해후'와 '메아리' 등의 퓨전음악도 들려주었다.

**미술관에서 미술품 도난**

대안미술공간에서 전시 중이던 작품 3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5년 11월 29일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소재한 대안공간 '눈'에서 전시 중이던 2005 금강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 작품 중 독일 작가 게르트 로게만의 입체작품 〈자연으로부터〉, 네덜란드 작가 안네네 메이어의 콜라주 작품 〈움직이는 분배된 정원Ⅲ〉, 미국 작가 미란다 메히의 콜라주 작품 〈풍요로운 꿈〉 등 3점이 사라졌다. 이윤숙 대안공간 '눈'의 대표는 사건 발생이후 책임소재는 묻지 않겠으니 작품만 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12월 9일 전시가 끝날 때까지 도난 미술품은 돌아오지 않아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삶 속에 머무는 예술**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송태호)이 '건축물(공공장소)과 예술작품'의 조화성과 삶 속의 예술이란 개념을 선보이는 전시를 마련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재단 건물에 미술작품 설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2005년 11월 25일부터 선보인 이번 전시에는 권중환, 김태중, 방혜영, 이부록, 이준근, 최혜광 등 젊은 작가 6명이 참여했다. 우선 1층 로비 중앙에 무릎 위로 잘려나간 거대한 발과 이에 걸맞는 신발이 눈길을 끈다. 권중환의 이 작품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물체의 용도와 쓰임새를 다시금 일깨우는 작품이다. 발 뒤로 보이는 두개의 기둥이 당초 회색에서 붉은 색으로 탈바꿈했다. 이준근이 자신의 혀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컴퓨터그래픽을 거쳐 꽃을 형상화한 꽃기둥은 그 옆 꽃가게와 어울려 화려함으로 다가온다. 로비에서 우측 엘리베이터쪽으로 돌아서면 벽면에 렌티큘러 작품이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이 작품은 보는 각도에 따라 두개의 이미지로 바뀌는 작품으로 이부록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냉정하고 이성적 유쾌한 패러독스를 전달하기 위해 설치했다. 그 옆 확장실로 이동하는

공간에는 최혜광이 피로한 일상의 자극제로 활용되는 선인장을 아름답게 설치했다. 로비에서 좌측은 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그 입구엔 김대중의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정신없는 벽화와 설치작품이 은행을 찾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다.

2층 전시실로 오르는 계단에는 힘겨워 보이는 작은 인형들이 배치돼 있고, 계단 중간에서 바라본 1층 천장에는 숨으로 만든 의자들이 공중 부양한 듯 떠다닌다. 계단을 올라 2층에 서면 풀밭을 형상화한 작품이 힘겹게 계단을 오른 뒤 푸른 자연과 만나는 인간을 묘사하고 있다. 방혜영 특유의 여성적 감각을 살린 작품들이다. 전시는 오는 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 강원

홍호선  
강원일보 기자

### 강원민예총 '강원문화포럼' 개최

강원문화재단이 2005년 11월 30일 2006년 도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기금'이라는 형식으로 예술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데 국한돼 온 강원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짚어보고,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운영개선방안을 살펴보는 포럼이 열려 지역예술계의 관심을 모았다.

민예총강원지회(지회장 성희직)는 2005년 12월 1일 강원국악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05강원문화포럼'을 개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지역문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며 강원문화 발전의 핵심과제로서 강원문화재단의 역할 및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화분권시대, 강원문화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강원문화재단의 조직 재정비와 도문예진흥기금 운용방식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아울러 강원도의 문화정책 및 문화마인드를 비판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현옥 문화커뮤니티팀도 대표는 "강원문화재단은 도문예진흥기금의 위탁관리 이외에 어떠한 사업도 펼치지 못하며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석 문화컨설팅바라 대표는

"도문예진흥기금은 예술성과 경쟁력을 갖춘 예술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각 분야 전문가 및 모니터를 통한 사후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봉길 도문화예술과장은 "도문예진흥기금이 내년부터 20억 원으로 확대돼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한 무대에

한국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결약에 등재된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가 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결약 선정기념 경축공연이 2005년 12월 23일 오후 7시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것.

이번 공연은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결약 등재를 기념해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5호 판소리, 13호 강릉단오제 단오굿이 한 무대에 올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의 정점을 보여줬다. 종묘제례악은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록됐고 판소리는 2003년, 강릉단오제는 2005년 등록됐다.

한국 3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한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더한 이날 공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공연과 인기가수 박상철, 안치환, 양하영 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또 오후 9시부터는 야외 헬기장에서 강릉의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졌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라호인 강릉농악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도무형문화재 제5호인 강릉학산오독떼기, 도무형문화재 제10호 강릉사천하평담놀이 등 강릉시무형문화재단체 연합공연과 햇불놀이, 다리밟기, 달집태우기, 불꽃놀이등 시민참여행사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강릉실내체육관에서 는 강릉단오제 세계무형유산선정 기념식이 열렸다.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형성 정보교류 워크숍

강원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네트워크형성과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이 2005년 12월 17, 18일 동해망산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동해문화원(원장 김형순)이 주최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기봉 지역문화네트워크 대표

의 '문화예술 정책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현주소', 오정덕 동해 목호중 학생부장의 '학교 교사가 바라는 문화예술교육', 이이재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의 '지역의 문화 예술교육인재 육성방안', 김정호 백두대간 보전회 사무처장의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왜 필요한가?' 등 4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황운기 공연예술기획 '도모' 대표가 '속초 아바이마을 아동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심오섭강릉문화원 기획총무부장이 '학교연계문화예술교육사'를, 조연섭 동해문화원 사무국장이 '동해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향토의 문화예술이 국가의 문화예술이다'를 타이틀로 문화예술교육 사례 발표를 했다.

### 세계명화전시회

세계 유명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명화전시회가 2005년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춘천문예회관 대전전시실에서 열렸다. 춘천문예회관과 중앙문화예술프로그램 센터가 주관한 이번 전시에서는 고갱, 고흐, 모네, 마네, 드가, 모딜리아니, 밀레, 세잔느, 클림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유명화가의 작품 150여 점이 선보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 보디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르노와르의 <피아노치는 소녀>, 고흐의 <해바라기>와 <방>, 밀레의 <이삭줍기> 등 익숙한 그림들이 전시됐다. 물론 전시된 작품들은 진품이 아니다. 그러나 화가들이 실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캔버스천에 디지털 프린팅을 한 다음 그 위에 정교한 수작업을 거쳐 완성시켰다. 세계 유명 박물관들과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국내특허기술로 실제 원작과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으며 손으로 만져보고 기념촬영까지 가능한 이색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체험과 초등학생들의 문화감성교육으로 인기를 끌었다.

### 강릉의 문화재 미술전

객사문을 통해 비친 아침 햇살, 눈내린 오죽헌 문성사 전경, 3월의 춘기석전대제(문묘대성전). 강릉의 문화재가 멋스런 미술작품으로 탈바꿈했다. 강릉문화원이 개원 50주

년을 맞아 오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8일까지 강릉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강릉의 문화재 미술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강릉문화원이 개원 50주년을 기념하고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결약 선정을 기념해 강릉의 미술계를 이끌어 온 12명의 미술인들에게 강릉의 문화재를 그려줄 것을 의뢰해 완성된 작품이다. 강릉문화원은 작품전시회에 선보였던 작품들을 대상으로 2006년 문화달력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전시된 작품은 국보51호 객사문(김한국강릉대교수), 오죽헌(이경도관동대겸교수), 문묘대성전(선학관관동대교수), 오성정(김영중관동대교수), 칠사당(이명인관동대강사), 해운정(한성숙관동대강사), 선교장할래정(김용원관동대교수), 임영당(엄기복강릉여성회관강사), 굴산사지 당간지주(심기섭강릉시장), 경포대(염미관관동대교수), 향현사(차영규강릉대교수), 선교장(고성중강릉대교수) 등 12곳의 문화재가 계절별로 나눠 그림에 담겼다.

## 충청

이현숙  
충청투데이기자

### 극단 시민극장 창단 35주년 기념작 <사춘기>

극단 시민극장이 창단 35주년 기념으로 날 사이먼의 <사춘기>를 무대에 올렸다. 2005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씨어터 제이(구 수정아트홀 4층)에서 선보인 이번 공연은 시민극장이 창단을 기념해 올 한해 릴레이로 펼쳐지는 공연 작품의 하나다.

이 연극은 사춘기를 맞게 된 한 소년과 그의 가족들이 겪게 되는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있는 가족드라마다. 일상적인 삶속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이 종류별로 담겨 있다. 겉으로 보기엔 단란한 가정이지만 그 속에서는 서로에게 벽을 쌓고 혼자만 알고 있는 현대의 가족상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가정이라는 탄탄한 울타리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진정한 의미를 짚어볼 만하다.

특히 이번 연극에는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극인 부부 이상관 씨(42)와 김옥희 씨

(39)가 부부로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 연극인 부부가 극중에서 커플로 출연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다. 이들 부부는 충북대 극예술연구회에서 인연을 맺은 연극인 부부다. 현재 이상관 씨는 새벽극단 대표로, 김옥희 씨는 새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여우 국악 실내악단 창단

충북지역 여성 국악연주자들이 국악 실내악단 '여우'(女友)를 창단했다. '여우' 국악실내악단은 지역 국악연주자들 가운데 독특한 개성과 실험적 연주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성 연주자들만이 모여 새로운 형식으로 결성하는 실내악단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단원은 13명으로 구성됐다. 대표 류재춘 씨를 중심으로 청주시립국악단 단원인 조유임, 박경은, 김진옥, 채수련, 최연정, 권유정, 이현아, 이민경, 나혜경, 민예진 씨 등이며 김우경, 김정기 씨는 열두음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연주경력이 7년 이상 된 연주자들이어서 국악 실내악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악기구성에도 전통관현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 등을 기본으로 타악과 신디사이저 등의 서양악기를 추가함으로써 국악기의 한계를 극복한 다양하고 독특한 음악세계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여우 국악실내악단은 정식 창단연주회에 앞서 2005년 12월 13일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첫 예미 무대를 마련했다. 창단 연주는 오는 3월 24일 예정. 연주는 국악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음악과 창작곡까지 두루 소화해 낼 예정이다. 또 전통음악과 퓨전음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로운 국악의 이미지를 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낭비성 축제?

'세계' 혹은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 개최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매 개최시 수십 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것에 비해 거둬들인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낭비성 축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주시 주최로 2005년 10월 23일 막을 내린 공예비엔날레에는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총 행사수입은

11억 원에 불과해 실속 없는 국제행사라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행사수의 내역은 입장권판매 7억 5000만원, 후원 및 협찬 1억 6000만원, 옥외광고 8600만원, 영업시설 6200만원, 페어관 체험관 참가비 2200만원, 공모전 출품료 1800만원으로 밝혀졌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세계 공예산업육성을 표방하며 1회(99년)에 53억 원, 2회(2001년)에 37억 5000만원, 3회(2003년)에 38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그러나 3회에 비해 올 4회 비엔날레에 12억원이 증액, 공예문화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업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상비와 예산집행, 배정기준의 부재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공예비엔날레를 통해 각종 문화산업 행사를 기획하고 외국인인을 포함해 올해 50만 명의 외지 관람객을 유치, 수백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거두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관람객수가 52만으로 집계되어 당초 목표한 숫자를 달성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유료관람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름값도 못한 축제로 조사됐다.

시관계자들은 "문화와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예비엔날레 행사는 개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올 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이처럼 낭비성 축제로 이어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치러지는 축제임에도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단체들의 잔치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또 국제행사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는 부실한 운영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야심에 의한 이벤트성 행사라는 여론도 일고 있다.

## 대구·경북

최두성  
매일신문 기자

### 대구 국제페스티벌 잇따라 개최

대구에서 국제페스티벌이 잇따라 개최된다. 올해 3회 행사를 치른 국제오페라축제에 이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2007년부터 대구에서 열린다. 또 대구디지털

탈아트페스티벌도 2007년 개최 목표로 추진된다.

조직위는 이 같은 축제를 2007년 1, 2월 중 공식 개최하기로 하고 내년 2월에 프레-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가을에 열리는 오페라축제와 함께 뮤지컬페스티벌이 음악축제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대구를 알리는 대형 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대구 지역의 원로연극인 이필동(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획처장) 씨를 조직위원장으로 선정했고, 예술기획 성우의 배성혁 대표, 설앤컴퍼니 설도운 대표, 신시뮤지컬컴퍼니 박명성 대표, 대구문화산업포럼 이종원 회장이 집행위원을 맡았다.

내년 프레-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는 2월 2일 브로드웨이 뮤지컬 <렌트>를 시작으로 <프로듀서스>, <지킬앤하이드> 등 10여개 작품이 참여하며 뮤지컬 시상식, 뮤지컬 세미나 등도 예정돼 있다. 또 '디지털예술 세계화, 디지털패션 선진화, 유비쿼터스 경제화'를 모색하는 대구디지털아트페스티벌을 유치하려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위원회는 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2007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60일간 전시컨벤션센터, FDA센터,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우주, 생명, 기(氣)에너지'라는 주제로 제1회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을 통해서 세계적인 디지털 미술·음악·패션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 미래 첨단 예술 장르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페스티벌 기간 동안 각종 전시회와 패션쇼, 국제회의, 워크숍, 이벤트를 개최해 디지털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삼을 계획이다.

**<디지털 센스&센세이션전>**

'디지털 감성'이 담긴 작품을 통해 우리 시대 '디지털 문화'의 정의를 살펴보는 이색 전시회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연말까지 필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디지털 센스&센세이션전>은 '배우면서 놀자'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입, 강연·세미나 등

학문적인 행사를 통해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근희, 문형철, 한지영, 노수영, 장기영, 황인숙, 박남희, 이애림, 이성실, 권희숙, 하광석, 임창민, 류재하 등 13명의 작가가 참여해 패러디·디카문화·성(性)·폭력·문화·키덜트·명상·테크닉·시간성·만화·전통 미술 등의 다양한 코드를 통해 '디지털 감성'을 표현했다.

**"마케팅 전략, 문화후원만한 게 있나요" 대구예총 아트포럼 세미나 - 메세나 운동**



기업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인 메세나 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구예총은 지난해 11월 18일 대구파크호텔에서 '문화예술과 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아트포럼 세미나를 열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박찬 한국메세나협의회 사무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이 상업적 홍보관점에서만 고려돼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고 이벤트성만 강조된 행사들로 채워졌다"며 그 실태를 꼬집고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윤리 차원이 아닌 상생전략 차원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석정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기업의 예술지원이 여유자금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아니라 기업의 목표인 이윤의 극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보와 자원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문화 후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술단체는 안정적 지원을 받고, 기업은 수준 높은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 사업이나 '1사 1

문화운동' 등을 펼쳐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과 문화예술, 그리고 시민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 끊임없는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방적이 아닌 함께 같이 한다'는 인식 이야말로 메세나의 승패를 가늠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애노을 합창단 '그랑프리상' 수상**

지난해 11월 29일과 30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린 제1회 창원 전국 그랑프리 합창제에서 대구 지역 애노을합창단(단장 신일순)이 대상인 그랑프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년간 전국 규모의 합창대회에서 최우수상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서울 드림싱어즈, 부산 연제구합창단, 창원시여성합창단 등 모두 9개 팀이 참가해 한국 합창의 왕중왕을 차지하기 위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애노을합창단은 박성수 씨의 지휘로 한국창작곡 <메밀꽃 사러>와 흑인연가 <여호수아>를 연주해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애노을 합창단은 의사, 방송인,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단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혼성, 남성, 여성, 소년소녀 합창단의 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3년 대통령배 전국합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한 애노을 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해외초청공연, 송년음악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 강동욱 경남일보 기자

**경남도립미술관 동계전 기획전시**

경남도립미술관은 2005년 동계전의 기획전시로 <유택택 사머니즘적 조형언어전>과 <일

본현대회화전>을 마련한다. 오는 2월 15일 까지 제2·3전시실에서 마련되는 <일본현대회화전>은 광복 60주년 및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한일우정의 해 2005>를 기념하기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는 경남과 인접한 한일해협 관련 구주지역 현대 미술을 중심으로 한 현역작가의 작품과 부산시립미술관, 창원대학 도서관, 진화랑, 도립미술관의 소장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국내에 여러 번의 기획 전시로 잘 알려진 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 1929~)를 비롯해 현재 일본 구주와 경도, 동경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22명의 일본작가 작품, 서양화(42점)와 판화(15점), 사진(3점) 등 총 60여점이 전시된다. <유택택 사머니즘적 조형언어전>은 도립미술관 4·5전시실에서 마련된다.

**한국관악협회 경남지부 창단**

한국관악협회 경남지부가 지난해 12월 10일 창단식을 가졌다. 관악협회 경남지부가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98년 이후로 활동이 미미했던 관계로 경남지부에 소속된 산하 지부들과 회원들이 뜻을 모아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하고 2006년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창단식을 가졌다. 한국관악협회 경남지부를 이끌 지부장에는 탁용명 씨가 선임됐으며, 부지부장은 임재효 씨, 수석부지부장은 황운근 씨, 감사는 황권태 씨, 강상용 씨, 사무국장이자 기획실장에는 강관주 씨로 결정됐다. 관악협회 경남지부는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 도내 관악인구 저변확대, 관악인 연주활동 확대, 경남관악제 부활,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등 전국대회 경남유치 등을 밝혔다. 현재 관악협회 경남지부에 소속된 단체는 진주지부, 창원지부, 마산지부를 비롯해 통영(거제)지부, 김해지부 등 도내 17개 지부가 있다.

**거창 '입체' 프랑스 무대에**

거창극단 '입체' (대표 이종일)가 올해도 프랑스 무대에 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랑스 파리공연축제에 공식 초청된 극단 입체는 작품 <다시라기>로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틀 동안 파리 메릴 몽팡팡장에서 공연을

가졌다. 올해 프랑스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고 허규 선생의 1979년 작품 <다시라기>. <다시라기>는 '다시 낳는 아이, 다시 태어나는 아이' 등으로 풀이되며 전남 진도의 장례 풍습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출상하기 전날 밤 치러지는 일종의 놀음굿이다. 극단 입체는 작품 <다시라기>를 통해 죽은 이에 대한 애도의 장소인 상가에서 상주에 대한 위로와 죽음의 무상,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허무와 슬픔 등을 연희자인 다시라기꾼을 통해서 해석적으로 재해석해 서양인들에게 선보였다.

**김해문화의 전당 관객 인기몰이**

누리홀, 마루홀, 애두름마당 등 공연장과 전시관이 함께 있는 김해문화의 전당이 4년 만에 지난해 11월 25일 개관한 가운데 지휘자 금년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비롯한 클래식, 퓨전국악, 뮤지컬 등 풍성한 공연 행사 등을 마련해 관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11월 26일 오후 6시 마루홀에는 지휘자 금년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 삽입된 전주곡과 제1막의 <하바네라>, 제2막의 <집시의 노래>, <투우사의 노래>, <꽃노래> 등을 진주출신 테너 하석배와 메조 소프라노 김정화와의 협연으로 함께하고, 보헤미안 구민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체코출신 드보르자크가 작곡한 흑인 민요풍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을 들려주었다.

또한 27일 오후 4시 마루홀에서는 김덕수 사물놀이의 <다이나믹 코리아>로 관객들과 함께했다. <일고화락>, <춘앵무>, <삼도농악가락>, 판소리, 판굿, 소고춤 등으로 관객들과 함께했다. 28~29일에는 마루홀에서 5명의 수녀들이 펼치는 뮤지컬 <넌센스>가 공연됐다. 올해는 <넌센스 잼버리>를 제목으로 엠네지아 수녀가 컨트리 뮤직스타로 변신하는 내용으로 꾸며지며 뮤지컬 배우 전수경, 명성황후의 이태원, 개그 콘서트에서 출산드라로 출연했던 김현숙 등이 참여했다.

**전업미술가 협회 경남지회 아트페어전**

한국 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지회장 이명

림)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전시장 전관에서 제8회 경남지회전과 아트페어전을 마련했다. 이번행사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아트페어전을 경남에서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전업작가들의 땀이 묻어있는 소중한 작품들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제1~4전시장에 마련된 아트페어전은 젊은 작가와 지역 유명원로작가를 포함한 33명의 작가들이 개인별 부스를 마련, 자신의 작품 10여 점을 전시했다. 이와 함께 제5·6전시장에서는 제8회 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전을 마련해, 한국 미술계의 거목인 전혁림 씨를 비롯해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등 순수미술에 매진하고 있는 내로라하는 원로·중견·유망작가 23명의 작품을 선보였다.

**경남문협 회장에 이우걸 시인 추대**

제12대 경남문인협회장으로 이우걸(시조) 전임회장이 다시 추대됐다. 경남문협은 지난해 12월 17일(토) 오후 3시 경남문화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05년도 사업결산과 임원개선을 했다. 부회장에 김복근(시조, 마산), 김혜숙(시, 통영) 씨는 연임되었으며, 황광지(수필, 창원) 씨, 진주 지역 1명(진주문협 정기총회를 거친 후 지부장)이 새로 선임되었다. 감사는 이상규(시, 함안), 최장길(아동문학, 김해) 씨가 연임, 사무국장에는 서일욱(시조, 마산) 씨, 사무차장 임성구(시조, 창원), 운영회(수필, 창원) 씨가 연임되었다.

이날 각 장르별 분과위원장도 선임했는데, 시는 고영조(신임, 창원), 시조는 김연동(연임, 마산), 수필은 신일수(신임, 진주), 아동은 임신행(연임, 마산), 소설은 김홍섭(연임, 마산) 씨가 맡았다.

**부산** 고기화 국제신문 기자

**2006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국제공모전 작품 선정**

2006년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국제공모전 출품작품이 6개국 10점으로 선정됐다.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응모마감일인

지난해 11월 11일까지 접수된 28개국 120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해수변 설치 작품 5점과 도로변 설치 작품 5점 등 모두 10점을 확정했다. 2006년 바다미술제에는 전시감독의 초창작품 20점을 포함, 모두 30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전시주제인 '아트 인 라이프(Art in Life)'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함께 심미성, 독창성, 안전성, 견고성, 편리성, 공공성 등 예술적·기능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평가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퍼블릭퍼니처 공모작품 중 국내 팀 '아트 패밀리'가 제출한 <아트 패밀리>가 예술성과 아이디어 측면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수변에 설치되는 작품 중에는 우리나라 작가 김선주의 작품 <복남이>와 필리핀 작가 자킨 가스고니아 팔렌시아의 작품 <해룡>, 인도 작가 수보드 케르카의 <해양> 등이 있다. 또 해운대해수욕장 도로변에 설치될 작품 중 우리나라 작가로는 한주용의 <나라말씀>, 양문기의 <아트벤치>, 박민영 외 5명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증은 울리나>가 있다. 외국 작가로는 일본인 작가 아마후지 히토시의 <칠판박스>라는 작품이 선정됐다.

조직위원회는 12월 중 국제공모전 출품 선정 작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올 1월 중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작가들의 작품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6년 부산비엔날레는 오는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열린다.

#### 2006부산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 세계 13개국 20개팀 참가

2006부산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 출품 작가가 세계 13개국 20개 팀으로 확정됐다.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김광우, 백성근 등

국내 7명(팀)과 미하 올만, 프리츠 슈베글러, 레너드 헌터 등 해외 13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이번 출품작가들은 전시 주제인 '대지의 경의(Homage to the Earth)'와 기획방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가들로 예술성, 독창성과 함께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는 도전정신 및 작가의 민족의 정체성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작가 중 2004년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감독을 맡았던 동아대 김광우 교수는 현대사회 속 인류의 고뇌를 풍자적으로 형상화해 사람의 존엄성을 환기시키는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다룬다. 외국 작가로는 아우슈비츠 희생자를 추모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미하 올만(슈투트가르트 빌덴 미술대학 교수)과 전시현장에 적응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레너드 헌터(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조각과 학장)가 참가한다.

또 언어와 음악, 미술 등 광범위한 예술을 서로 연결하는 개념적 작품으로 유럽에서 인기 있는 독일의 프리츠 슈베글러를 비롯한 일본의 칸 아사다, 이탈리아의 지롤라모 출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예작가 중에서는 시각적 개념미술 조각을 선보여 북경미술계와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리 후이가 있다. 2006부산비엔날레 부산조각프로젝트는 오는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산 해운대 APEC 나루공원에서 열린다.

#### 하야로비무용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하야로비현대무용단(예술감독 하정애)이 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을 지난해 11월 8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었다. 현대무용가 하정애(신라대 무용학과) 교수가 이끄는 하야로비현대무용단은 부산에서 처음 출현한 동인춤파. 신라대 무용학과 현대춤 전공자들로 구성된 하야로비현대무용단이 1985년 1월 창단된 뒤 부산에서 동인춤단체들의 창단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단체는 일종의 기폭제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야로비현대무용단은 창단 초기부터 실험적인 작품들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현대무용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올렸으며

1990년 제2회 봉생문화상을 수상했고 2002년에는 제11회 부산무용제 대상과 제11회 전국무용제 금상, 무대미술상을 타기도 했다. 하 교수는 "나약한 젊은 여성들로만 시작했던 단체가 20년을 거쳐 지역 무용 예술 발전에 기여한 무용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라며 "20주년을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동아시아 불교학회 출범 - 영호남 주축, 한중일 연계

영호남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남부권이 주축이 돼 중국과 일본을 연계하는 불교 학회가 설립된다. 동아시아불교학회(가칭, 준비위원 장성욱 동의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중구 중앙동 고심정사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창립 준비를 위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학회는 학술연구 외에 영호남지역에 분포한 문화재 연구와 배아줄기세포 문제 등 현대인이 직면한 현상에 대한 불교 철학적 해석을 내놓는 등 불자들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드는 학회 운영을 지향한다. 학회설립 준비에는 부산, 마산, 경북, 대구, 경주, 포항, 전라도 광주와 전주 등지의 학자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불교계는 범어사와 통도사, 해인사, 삼광사 등 수많은 큰 사찰들이 한반도 남부권에 많이 분포해 있으면서도 불교학회는 서울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 연구자들의 논문을 게재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특히 학자들의 논문 평가에 사용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후보에 오른 학회 중 불교와 관련한 8개 학회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해 영호남 소장 학자들 사이에는 지역을 토대로 한 학회 설립 욕구가 높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윤종갑 선임연구원은 "큰 사찰과 문화재 등 종교의 현장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많이 있는데 학회는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연구자들의 학술활동과 참여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광사 박물관 조명제 연구원은 "오늘날 불교의 담론은 전통이라는 무게에 짓눌리고 고답적인 데다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고 끌여가기보다 오히려 고고한 성에서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990년대 들어 불교 학계에서 '동아시아'가 화두가 됐고, 중국의 급부상으로 중국불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국춤>



부산시립무용단 제53회 정기공연 <국춤>(안무 및 구성 홍기태)이 지난해 11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랐다. 공연작품은 <천하태평지무>, <동래학춤>, <설장고놀이>, <수영야류 중 <말뚝이춤>, <부채 화간점무>, <천지인> 등 6개. 특히 <천하태평지무>와 <천지인>, 그리고 한자를 이용한 신조어로 제목을 붙인 <부채 화간점무>는 안무자의 전통춤 변주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천하태평지무>는 춤과 무대세트, 조명, 의상을 매우 화려하게 처리해 궁중무용 특유의 아름다움을 살리되 별도의 장치를 통해 신명을 잃지 않도록 했다"고 홍 안무자는 밝혔다. <천지인>은 화려하고 호흡이 빠른 대작. 여러 타악기를 흥이 넘치도록 연주하는 가운데 검무 등 쇠를 이용한 춤사위를 많이 넣었다. <부채 화간점무>는 여성만 나오는 춤으로 이정인의 솔로 부채춤이 군무와 어우러진다. "꽃 속에 나는 나비의 춤"이라는 뜻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올해 미국과 유럽 등 2차례 해외공연을 다녀오고 <더 워>, <즐거워라 무릉도원> 등 대작을 소화한 뒤 지난해 11월 APEC에 참가한 해외정상들을 위한 축하

공연을 갖는 등 유난히 바쁜 한 해를 보냈다.

#### 광주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 아시아 미술포럼 개막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아시아 문화전당 착공(12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아시아 미술포럼'이 지난해 12월 5~6일 이틀간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개막했다. (재)광주비엔날레 주최로 열린 '아시아 미술포럼'은 아시아 미술의 정체성과 현대미술과의 연계성을 확인한 뜻 깊은 자리로, 김홍희 제6회 광주 비엔날레 예술총감독과 우홍 수석 큐레이터를 비롯, 미국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술관 멜리사 쉐관장, 일본 교토 국립 현대미술관 신지 코모토, 자클린 바스 전 UC 버클리 미술관장 등 국내외 저명 미술평론가와 전시기획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제1부 '아시아의 전통과 새로운 정체성', 제2부 '아시아 현대미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나뉘어 아시아 미술전통에 대한 재조명과 아시아 미술의 문화공동체 비전의 실현가능성을 논의했다. '2006 광주 비엔날레와 미술에서의 정체성 문제'라는 주제로 기초발제에 나선 김홍희 예술총감독은 "21세기 국제 비엔날레는 민족적이면서도 초 민족적이고, 국가적이면서도 초국가적인 미술을 실현·발표하는 정체성의 무대가 되고 있다"며 "6회 비엔날레는 광주에서 출발해 아시아, 세계로 확장되는 동시에 아시아와 세계가 광주로 집결되는 '진원지 내러티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우리땅 바로 알기를 위한 끄트머리 답사기 기획전 <백두산 천지에서 마라도까지>

우리 땅 구석구석을 붓과 캔버스로 그려낸 이색전시회가 열렸다. (사)대동문화는 지난해 12월 6~10일까지남도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우리땅 바로 알기를 위한 대한민국 끄트머리 찾기 답사기 기획전>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광복 60주년과 대동문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제목

그대로 우리 땅과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남도 미술인들의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종래의 고답적인 스케치 여행전에서 탈피, 문화에 대한 인식과 답사, 그리고 미술이 결합된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전시.

특히 전시 출품작들은 일반 시민들과 회원, 화가들이 참여해 펼친 답사의 결실로 역사의 현장이나 풍경, 감흥 등을 생생하게 접했다. 전시는 '소박한 전설이 숨쉬는 섬 서단의 거거도'(7월 30~31일), '웅혼한 대륙의 기상 고구려와 백두산'(8월 8~12일), '한반도의 자랑스런 막내 독도'(8월 14~16일), '바다를 향한 꿈 남쪽 끝 마라도'(10월 2~3일) 등 네 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 송순섭 명창 고회기념 공연

운산 송순섭 명창의 고회 기념 및 소리 인생 50년을 갈무리하는 <명인명창 판소리 대향연>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18기념 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렸다. 평생 한번 하기도 힘들다는 완창발표회만 무려 30여 차례나 성공적으로 치러낸 송순섭 명창이 그의 동료 제자들과 함께 꾸민 이번 무대는 60여 명이 무대에 오를 대형 공연. 이날 무대에서 송 명창은 해학과 풍자, 그리고 익살맞은 재담이 넘치는 수궁가 대목을 공연했다.

송 명창은 1936년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에서 태어났다. 다른 명창들에 비해 늦은 22세 때 소리공부를 시작한 그는 광주에서 공대일 선생에게 <흥보가>를 배웠고, 김준섭 선생에게 <심청가>와 <수궁가>를 사사했다. 이어 1963년 부산으로 간 송 명창은 박봉술 선생과 김연수 선생에게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워 동편제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섭렵했다. 그 후 지난 94년 전주대사습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명실 공히 명창 반열에 올랐고, 지난 2002년 2월에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제5호)로 지정됐다.

#### 광주 시립무용단 <호두까기인형>

크리스마스 발레의 고전인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은 매년 연말이면 전 세계 곳곳의 대규모 극장에 일제히 무대에 올려질 만큼 인기 있는 송년 레퍼토리다. 작년 연말

에도 <호두까기 인형> 발레공연이 12월 15~17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이영애)의 제85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호두까기 인형>은 마리우스 피티파와 레브 이바노브가 안무를 맡아 189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극장에서 초연됐던 작품을 이영애 단장이 새롭게 재안무했다. 이날 무대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사탕요정役に 정은정·조나경 씨, 호두까기 왕자役に 오윤환·서태용 씨, 호두까기 인형役に 송성호 씨, 어린 클라라役に 여수현·노여진 씨 등이 맡았다.

## 전북

도휘정  
전북일보 기자

### 전주천 프로젝트 '무지개를 찾아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동동 떠다니는 맥주병과 페트병, 그 사이를 가르는 종이배. 전주천이 흐른다. 그룹 발이 울해도 전주천 프로젝트를 열었다.

지난해 전주천 현장에서 펼쳐보였던 설치작업을 올해는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문화공간 '씩' 안으로 들여왔다. 원래 실내 낚시터였던 공간의 특성을 살려 전시장 안에 물을 받았다. 그 안에 전주천에서 주워온 쓰레기들을 풀어놓고, 나무 조각으로 만든 큰 조각배와 작은 종이배들을 띄웠다. 전시장은 아주 작게 축소된 전주천의 현재 모습이다. 전주 사람들에게 전주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도심을 가르고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며 전주천은 지역의 역사와 향수, 생활의 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물'에 대한 작가들의 표현과 전주천을 몸으로 느낀 초등학생들의 시각으로 나뉜 이번 전시는 미술로 전주천을 대중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곳으로 바꿔놓았다. '무지개를 찾아라!'라는 전시 주제처럼 마음의 풍요로움과 동심의 세계에서 꿈을 찾아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통이 단절된 시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아이들의 작품은 문화공간 '씩'의 작가들이 아이들과 함께 전주천의 물을 마시고 전주천 주

변을 거닐며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 낸 것. 스무 명의 아이들에게 비닐봉지를 나눠주고 그 안에 자신의 생각을 담도록 했다. 전주천에서 발견한 들꽃과 들꽃, 주워온 쓰레기들, 전주천에 대한 글 등이 담겨져 전시됐다. 물의 개념을 평면으로 풀어낸 작가는 한국화가 정명희, 이창희, 오송규 씨.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먹을 들었다. 현재 임신 중인 오세나 씨는 여러 개의 주머니 안에 양수를 뜻하는 물을 담았고, 유기종 씨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물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으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전주천 위에 떠있는 나무조각배는 전시를 기획한 채성태 씨의 작품. 조각가 이효문 씨는 손을 맞잡고 있는 사람들을 거칠고 단순한 형태로 나타내 낯선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 현대무용단 사포의 소극장 시리즈 <이홍민의 댄스 스토리>

춤을 통해 말을 걸어오는 이가 있다. 무대 위에 펼쳐지는 몸짓 언어는 오감(五感)을 통해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되고 이들은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 현대무용단 '사포'(대표 신용숙)의 소극장 시리즈 22번째 '이홍민의 댄스 스토리'가 지난해 12월 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렸다. 지난 1990년에 처음 시작한 사포의 소극장 시리즈가 근 5년 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다시 부활해 올해 첫 공연을 올리는 것.

이번 공연의 책임안무를 맡은 이홍민 씨(29)는 <05가시리>, <미세감각>, <공간 속 게임> 등 총 3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05가시리>는 지난 2003년도에 사포 정기공연에 올렸던 작품으로 새로운 멤버를 투입, 조건과 환경에 변해가는 사랑을 주제로 돈과 명예만을 쫓는 인스턴트식 사랑을 코믹하게 풀어냈다. <공간 속 게임>은 집약된 공간 안에서 몇 가지 규칙을 적용해 댄서들의 움직임을 지배한다. 소품과 의상, 조명을 풍부하게 활용해 극적 재미를 더했으며 앞의 <05가시리>와 더불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마련했다. 이 씨가 가장 무거운 둔 작품은 <미세감각>. 준비기간만 3

개월이 걸렸다는 이 작품은 짧지만 현재까지 그의 무용인생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홍민 씨 인터뷰>

"영화처럼 황홀하고 재미있는, 그래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현대무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연의 총안무를 맡은 이홍민 씨는 무용으로 영화와 같은 무대를 꿈꾼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씨는 이번 무대 또한 독창적이면서 실험적인 작품들로 구성했다.

"지난 2000년부터 한 해에 한 작품씩 안무를 해왔지만 이번 공연에 올리는 <미세감각>의 경우 10년 동안의 무용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출연자들과 함께 새벽 4시까지 밤을 지새우며 작품에 대한 모니터와 수정작업을 계속 해온 만큼 그에게는 애정이 많은 작품.

대학입학 때부터 무용수로서 주목받던 그가 안무가로서 거듭난 것은 가장 오래도록 집중할 수 있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출 때보다 춤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볼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분명 다릅니다. 앞으로도 무용수보다는 안무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번 무대도 춤에 예술적 열정을 쏟아보려는 과정 중 몇 가지 생각들을 무대위에 그려봤습니다."

그는 무용수와 안무가를 철저히 분리한다. 안무가가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밖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무용계는 안무와 출연을 함께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안무가가 자신의 작품에 직접 출연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높아진 관객 수준과 무용계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각자 프로의식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영화의 매진 사례를 무용공연에서도 이뤄보고 싶다. 안무가도 하나의 직업이고 전문분야라는 이 씨.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작품을 통해 무용이 영화나 뮤지컬처럼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원광대 무용학과를 졸업한 이 씨는 현재 현대

무용단 사포의 기획담당과 춤이 있는 공간 대표, 전주예술중학교 강사로 활동 중이다.

### 제1회 전주학 학술대회 — 전주지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

지방화 시대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현안을 해소해 가는 방편으로 '전주학'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에서 열린 '제1회 전주학 학술대회 — 전주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에서는 '전주학' 정립의 필요성과 고대·중근세·근현대 등 각 시대별 전주지역 연구과제가 제시됐다.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은 "전주학"은 전주의 입장에서 분석해 전주라는 지역과 전주 사람들의 성향과 특질을 해명하고 자료들을 집대성해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동력으로 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한국학의 한 부분으로 전주 지역사를 연구하는 것과 '전주학'의 차이는 중앙이 아니라 전주의 시각에서 지역을 바라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주학'이 전체사를 도외시한 지역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 이 관장은 "전체사와 지역사의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주의 문화 역량을 콘텐츠 자원으로 축적하고 전주 역사문화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전주의 사상적 기반과 정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는 전주가 이제야 '전주학'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한 장명수 전주사랑실천연합 대표는 "지금까지 발표된 전주에 관한 논문과 저서는 '전주학'이라는 종합계획 아래 진전된 것이 아니어서 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며 '전주학'의 연구 범위 책정과 연구 방법, 연구 과제 등을 제시했다.

## 제주

박미라  
제민일보 기자

### 제주민예총 정기총회

제주민예총의 제13차 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 9일 개최된 가운데 김수열 현 지회장

의 연임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2006년 상임위원회로서 문예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문예교육사업의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임기는 2년. 문예교육위원회는 제주민예총의 학술관련 사업을 총괄 집행하는 한편 기존의 기존 강좌프로그램을 평가 분석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 회원의 전문성 재교육 및 강화, 문예교육사업 체계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문예교육위의 신설은 13년을 맞이한 제주민예총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학술문화사업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 제주문화예술 기록 보존사업 활발

제주도가 2006년 도제 실시 6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관련 기록 보존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월 중앙왕조사의 일부분으로만 치우쳤던 제주사를 주제적으로 정리한 『탐라국 시대사』를 3권에 걸쳐 발간하는 한편, 3월에는 도제 60주년을 맞아 제주미술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제주미술인 작품집』을 펴낸다. 『제주미술인 작품집』에는 한라미술인협회제주도지회를 비롯해 탐라미술인협회, 재경한라미술인협회 등 총 400여 명의 작품이 수록될 전망이다.

또 올해 12월 제주의 문화와 관광을 결합해 새로운 테마 여행을 제시하는 『제주여행 문학작품 화보집』을 펴낼 예정이며, 2007년 12월에는 도내 20개 문화예술분야의 60년 활동사를 총 정리한 『제주문화예술 60년사』도 발간한다. 이에 앞선 내년 5월에는 전 7권으로 이뤄진 『제주도지』 3차 증보판 발간을 예정하고 있다. 제주도지는 제주도의 자연·지리, 역사에서부터 정치·행정·문화·여성·교육까지 전 분야를 망라해 정리한 것으로 2차에 걸쳐 발간돼왔다. 이외에도 『제주어사전』과 초대부터 30대 도지사까지 역대 도백의 도정수행을 정리하는 『도백열전』발간도 계획 중에 있다.

### 춘사영화제 제주 개최

지난해 12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춘사나운규영화예술제에서 영화 <월의 누>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제주에

서의 개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춘사나운규영화예술제는 한국영화계의 선각자인 춘사 나운규의 예술 혼을 기리기 위해 한국영화감독협회가 개최하는 비영리 경쟁영화제. 지역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 등 영상산업의 중심지가 아닌 변방의 섬 제주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게 됐다. 제주의 경우 오는 3월 영상미디어센터 완공과 평화영화제 개최 등을 추진하며 영상산업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춘사영화제의 첫 개최는 의미를 지녔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주개최 등도 언급되면서 영화제의 향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춘사영화제에서는 <월의 누>가 대상 이외에도 감독상(김대승), 조명상(김성관), 편집상(김상범·김재범), 기술상-특수분장(신재호), 촬영상(최영환), 남우조연상(박용우), 미술상(민언옥) 등 8개 부문을 동시에 휩쓰는 영광을 안았다.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은 각각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 <너는 내운명>의 전도연 씨에게 돌아갔다.

### 4·3장편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 김경률 감독 별세

4·3 첫 장편영화인 <끝나지 않은 세월>로 4·3영사화에 물꼬를 튼 김경률 감독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뇌출혈로 쓰러진지 하루 만에 별세, 도내 문화예술계의 안타까움을 샀다. 향년 41세. 제주민예총 민요패 소리앗에서 활동해온 김 감독은 도내 열악한 영상산업 여건 속에서도 단편영화 <실문대 할망 큰술에 빠져 죽다> 등 제주인의 시선을 담은 독립영화를 꾸준히 제작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재정적 압박과 제대로 된 장비하나 없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를 제작, 시사회를 가진 지 6개월 만에 일어난 사고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4·3항쟁을 담은 <끝나지 않은 세월>은 주인공 없이 홀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관객과 만나게 됐다.

월간

『문화예술』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보다 앞서가는 잡지, 질 높은 잡지, 알찬 잡지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부드러운 시선보다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좋은 잡지' 라는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2005년 한 해도 월간 『문화예술』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문화예술』에 의견을 주실 분을 위해서...

- 원고마감은 매월 15일입니다.
- 원고는 우편이나 FAX, E-Mail 또는 본원 홈페이지(게시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원고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소 : 우 110-76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미디어팀
- 전 화 : 02-760-4568
- FAX : 02-760-4706
- E-Mail : magazine@arko.or.kr
- 홈페이지(게시판) : www.arko.or.kr

원고가 『문화예술』지에 게재되는 분께는 『문화예술』지 6개월분 무료구독 기회를 드립니다.